



발표요약본 (Presentation Summary)

특별세션3. 차유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의과학연구소 연구조교수

따뜻한 의사의 차가운 도전, 의사와과학자의 꿈

현대의학이 여전히 정복하지 못하는 많은 질병들은 인간의 건강한 삶을 위협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현대의학의 범주를 확장할 수 있는 과학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의료는 과학에서 태동했지만 현대 의사와 과학자의 역할은 사뭇 다르게 발전해왔다. 복잡한 보건의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와 과학자의 협력을 넘어 양 분야를 모두 넘나들 수 있는 의과학자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안정적인 직업으로 여겨지는 의사가 과학자의 길에 도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로 여겨져 왔다. 안정적인 의사의 삶을 살아가던 나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현대의학의 한계를 극복하는 길이 결국 과학기술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의과학자의 길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끝에는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다.

Special Session 3. Cha Yujin

Research Assistant Professor, BioMedical Research Center, KAIST

A way to save countless people, a dream of being a physician scientist.

Many diseases that medicine has yet to solve threaten the healthy lives. To overcome them, scientific research capable of developing medicine is necessary. While medicine originated from science, the roles of physicians and scientists have evolved quite differently. To address complex healthcare issues, there is a growing emphasis on the need for physician-scientists who can navigate both fields beyond the collaboration between physicians and scientists. However, it has long been considered challenging for physicians, often seen as a stable profession, to embark on the path to becoming a scientist. Even though I was a physician who had been leading a stable life, I realized that the key to transcending the limits of medicine lay in the realm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journey of becoming a physician-scientist was filled with challenges, but at its end lay a dream I desired to achieve.

※ 연사가 발표자료 공개에 동의하지 않아 발표요약본으로 대체하여 제공합니다.

Speakers did not granted to release their presentation materials, therefore, a presentation summary will be provided.